

기술분석보고서 경기관련 소비재

유니크(011320)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이소연 책임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유니크(011320)

정밀 유압·솔레노이드 제어기술 기반의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전문기업

기업정보(2025.11.21 기준)

대표자	안영구, 안정구
설립일자	1976년 04월 21일
상장일자	1993년 12월 29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주요제품	변속기 제어용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

시세정보(2025.11.21)

현재가(원)	4,75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919
발행주식수	19,320,695
52주 최고가(원)	4,810
52주 최저가(원)	3,155
외국인지분율(%)	2.75
주요주주	안영구, 안정구

■ 50여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기반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주식회사 유니크(이하 ‘동사’)는 자동차 전장·구동·제어·전동화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국내외 완성차 및 모듈업체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본사는 김해에 위치하고 판교와 김해에 연구소를 운영하며 내연기관부터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연료전지차에 이르는 친환경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동사는 장기간 축적된 솔레노이드 제어기술과 전동화·열관리 솔루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차로의 전환 흐름 속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 전동화 전환 속 파워트레인·변속기 부품산업의 전망

글로벌 자동차 변속기 시장은 전동화·고효율 파워트레인 수요가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은 전동화 확산으로 솔레노이드·제어밸브 등 고정밀 제어 부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전기차 중심의 감속기 및 정밀 제어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변속기는 기계·유압·전자제어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동사는 오랜 기간 축적한 솔레노이드 기반 유압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변속기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핵심 제어부품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 고도화되는 파워트레인 기술 환경에서의 경쟁력 강화

동사는 자동변속기 솔레노이드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력과 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전동화·수소·지능화로 확장되는 차량 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기존 변속기용 솔레노이드를 중심으로 안정적 매출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소연료전지 스택·탱크 밸브와 자율주행 센서 클리닝 솔레노이드 등 미래차 핵심 부품에서 신규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의 장기 공급 이력과 기술 수상은 향후 전동화 부품 국산화 확대 과정에서 동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요인으로 평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2,840.8	15.2	59.4	2.1	35.5	1.2	3.2	1.5	116.6	184	5,828	25.2	0.8
2023	3,289.5	15.8	93.4	2.8	63.8	1.9	5.6	2.6	114.2	330	6,072	15.7	0.9
2024	3,748.0	13.9	83.5	2.2	77.2	2.1	6.4	3.0	115.2	399	6,448	8.6	0.5

기업경쟁력

국내 솔레노이드 밸브 최대 양산
역량 보유

- 국내 최초 4단 자동변속기용 솔레노이드 개발, 세계 2번째 8단 솔레노이드 양산
- 솔레노이드 누적 생산량 3억3천만 개 돌파(2024년 기준)

장기간 OEM 공급을 통한 품질 신뢰성
확보

- 현대차·기아에 6속·8속·HEV 변속기용 솔레노이드를 지속 공급
- 현대차그룹 R&D 테크 데이 우수상 수상으로 기술 신뢰도 인정

지속적 R&D 기반의 기술 축적,
기술 중심 경영 및 안정적 지배구조

- 연구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 적극 투자, 수소제어모듈·수소탱크 밸브 기술 국산화
- 경영주 최대주주 지분 확보, 기술 기반의 장기 책임경영 강화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변속기용 전자유압 솔레노이드 기술

- 자동변속기·DCT·HEV 전용 솔레노이드 개발·양산

수소연료전지차 제어밸브 기술

- 스택용 FPS 밸브 및 고압 탱크 솔레노이드 HTV 개발 및 양산

지능형 차량 제어 기술

- 센서 클리닝 밸브·제어기 일체형 시스템 개발
- 자율주행 차량 환경에서 요구되는 센서 안정성 유지 기능 확보

동사의 주요 제품



자동변속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엔진오일펌프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수소가스 제어 밸브

시장경쟁력

완성차 업체와의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

- 장기간 Tier-1 공급사로서 이력 보유, 성능·내구성 검증 완료
- 다단 AT 및 하이브리드 변속기에 적용되며 플랫폼 변경에도 지속 채택

미래차 분야로의 적용 확장성

- 현대차 넥쏘·수소버스·수소트럭에 FPS 밸브 및 HTV 공급
- 수소제어모듈(FPS) 원천기술 국산화 완료로 수소차 성장에 대응 가능

자율주행·지능형 차량 분야로 기술 확장

- 센서 클리닝 밸브·제어기 일체형 시스템 개발 실적 보유
- 자율주행용 센서 클리닝 밸브로 기술 적용 분야 확대 가능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 환경보전을 전 임직원의 기본 임무로 규정하고 전사적 실천 강화
- ◎ 제품·서비스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최소화
- ◎ 국제 규격 기반 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지속적 개선 추진
- ◎ 환경 법규 준수 및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 정기 실시

S

사회책임경영

- ◎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 위험성 평가·리스크 감소 활동 등 안전보건 체계적 운영
- ◎ 임직원 성장 지원 제도 운영 및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 ◎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

G

기업지배구조

- ◎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책임경영 체계 추구
- ◎ 투명한 공시체계 및 내부통제 구축
- ◎ 정보보호 정책 운영 및 법규 준수를 통한 데이터 보호 강화
- ◎ 임직원·고객·협력사와의 공정하고 신뢰 기반의 경영 활동 추진

I. 기업 현황

자동차 부품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 기반의 중견 자동차 부품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

동사는 자동차 분야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 부품기업으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OEM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전장 부품(USB충전기·시계·센서), 구동·제어용 솔레노이드 밸브, 전동화 냉각·냉매 밸브와 FCEV 수소 제어모듈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친환경·전동화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구동과 전동화 부문이 전년 대비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하였고, 생산 가동률 역시 구동·전동화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동사의 지분 구조는 최대주주 안영구 대표이사 20.51%, 특수관계인 포함 총 39.27%를 보유한 가족 중심 지배구조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기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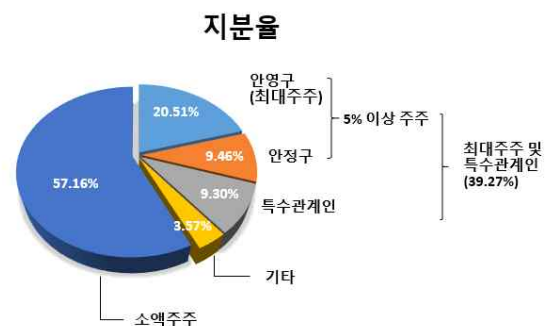
동사는 1976년 4월 설립 이후 자동차 부품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자동차 전장·구동·제어·전동화 부문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해 온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동사는 시계 제조업으로 출발했으나 차량용 시계·시가라이트·센서류를 거쳐 자동변속기용 솔레노이드 밸브와 친환경 배기가스 저감 부품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기술 기반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동사는 1993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본사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하며, 중국 청도에 100.0% 지분의 종속회사를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2025년 9월 30일 기준 안영구 대표이사로 20.5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생인 안정구 대표이사(9.46%) 및 친인척 중심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면 총 39.27% 수준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분구조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오너 일가가 지배력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전형적인 가족지배 구조로, 경영권 안정성이 매우 견고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부 기관투자자나 전략적 투자자 중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액주주 비중은 57.16% 수준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지분 집중도가 높아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오너 일가에 집중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장기 전략 실행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주요 경영 판단이 내부에 집중되는 만큼 투명성·감시 체계 측면의 보완 필요성도 병행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표 1. 동사의 지분구조 현황

(기준일: 2025.09.30, 단위: 주, %)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안영구	3,963,206	20.51	최대주주
안정구	1,828,040	9.46	5% 이상 주주
특수관계인	1,797,045	9.30	특수관계인
소액주주	11,041,859	57.16	
기타	690,545	3.57	
합계	19,320,695	100.00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5.11),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2. 동사의 주요 연혁

창립기 (1976~1985)	1976. 04	적고정밀 주식회사 법인 전환
	1980. 07	주식회사 적고 상호 변경
	1987. 05	과학기술부 산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989. 05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용 밸브 개발
	1991. 02	일본 TOSOK(주) 자동변속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기술 제휴
성장기 (1986~2006)	1992. 07	김해 제 1공장 준공
	1992. 10	자동변속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개발
	1993. 12	코스닥 시장 상장
	1995. 01	서스펜션 솔레노이드 밸브 개발
	1995. 12	ISO 9001 인증 획득
	1996. 02	김해 제 2공장 준공
	1996. 11	일본 AISAN(주) 기계식 연료펌프 기술 제휴
	1996. 12	독일 SIMENS(주) 전자식 전기배선 시스템 기술 제휴
	1997. 09	일본 JECO(주) 자동차용 멀티 미터 기술 제휴
	1999. 07	전자식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용 밸브 개발
	2000. 04	주식회사 유니크 상호 변경
	2002. 08	중국 청도유니크부건유한공사 설립
	2003. 01	차세대 자동변속기용 전자유압제어 모듈 개발
	2005. 03	ISO 14001, ISO/TS 16494 인증 획득
	2005. 08	아산공장 준공
	2006. 03	이노비즈 인증 획득
도약기 (2007~현재)	2007. 01	자동변속기 6단용 솔레노이드 밸브 개발
	2008. 06	일본 TOSOK(주) 자동변속기 6단용 VFS 밸브 기술 제휴
	2009. 01	자동변속기 8단용 솔레노이드 밸브 개발
	2009. 03	락앤브레이크 제어용 밸브 개발, 배기가스 저감용 바이패스 밸브 개발
	2009. 06	HCV 하이브리드 CVT용 솔레노이드 밸브 개발
	2010. 12	김해 제 3공장 준공
	2011. 03	DCT용 솔레노이드 밸브 개발
	2011. 09	자동변속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개발(Continental)
	2012. 07	CVT용 솔레노이드 밸브 개발
	2012. 12	수소연료전지차용 수소제어 밸브 개발
	2013. 08	공압 솔레노이드 개발, 엔진오일펌프용 솔레노이드 개발
	2013. 09	OHSAS 18001 인증 획득
	2014. 05	판교 R&D센터 개설
	2015. 09	김해 제 5공장 준공
	2019. 04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국가핵심기술 선정
	2020. 07	김해 제 6공장 준공
	2020. 11	연료전지시스템용 수소밸브 및 자율주행용복합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2021. 03	ISO 45001 인증 획득
	2022. 12	예산공장 준공

자료: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사업 및 주요 제품, 매출현황

동사의 주요 사업은 차량용 전장 부품, 구동 부품, 제어 부품, 전동화 부품 등 자동차 기술 전반에 걸친 핵심 부품을 연구·개발하고 제조·판매를 중심으로, 김해와 판교에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차량뿐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솔레노이드 밸브로 대표되는 제어·구동 기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설계·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완성차 기업과 견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영역에서 OEM 직납 또는 모듈업체를 통한 공급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에 적용되는 수소 제어 모듈, 냉매·냉각 밸브 등 전동화 부품과 자율주행 대응 기술과 같은 미래차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동사는 전장 부문에서 차량용 USB 충전기, 차량용 시계, 시가라이터, 각종 센서류 등 차량 내 편의·전자 인터페이스 제품을 제조하여 차량 내부 기능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구동 부문에 있어서는 변속기 및 파워트레인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인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료전지용 솔레노이드 밸브 등 차량 구동계의 유량·압력 제어를 수행하는 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어 부문에서는 듀얼클러치 변속기(Dual Clutch Transmission, DCT)용 솔레노이드 밸브, 오일 펌프 제어 밸브(Oil Pump Control Valve, OPCV), 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 등 파워트레인의 연비, 출력, 배출가스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 제어 밸브를 제조하고 있다. 해당 부품들은 고정밀 유압제어 기술이 필요하며 OEM 품질기준에 맞춘 안정적 양산 능력이 요구되는 제품들이다.

전동화 부문은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한 영역으로, 전자식 변속 시스템(Switch-By-Wire, SBW), 냉매 밸브, 냉각수 밸브 등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및 하이브리드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의 열관리 및 전자제어 시스템에 적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전동화 제품군은 최근 매출 증가폭이 두드러지며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종합하면, 동사는 내연기관 중심의 구동·제어 부품 기술력에서 출발해 전장 및 전동화 부품까지 기술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완성차 품질규격에 대응하는 양산기술·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2025년에 들어 전동화·구동 부문 중심의 성장 패턴이 뚜렷해지고 있다. 동사의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3분기까지 구동 부문 1,392.9억 원, 전동화 부문 304.8억 원으로, 2024년 동기(구동 1,185.3억 원, 전동화 172.9억 원)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전동화 부문은 약 76.2% 성장하며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기반 열관리 및 전동화 밸브류의 수요 확대에 의해 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사업부문		품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3Q	2025년 3Q
자동차 부품	전장	차량용 USB충전기, 시계, 시가 라이터, 센서류 등	788.2	835.8	1,092.6	783.6	853.8
	구동	유압 솔레노이드밸브, 연료전지용 솔레노이드밸브 등	1,102.6	1,401.0	1,587.1	1,185.3	1,392.9
	제어	DCT 솔레노이드밸브, OPCV, 바이패스밸브 등	853.2	890.7	823.4	615.1	647.9
	전동화	SBW, 냉매밸브, 냉각수밸브	96.8	162.0	244.9	172.9	304.8
합계			2,840.8	3,289.5	3,748.0	2,756.9	3,199.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2024.03), 동사 분기보고서(2025.11, 2024.11),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자동차 부품 및 변속기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시장 동향

글로벌 자동차 변속기 시장은 전동화와 고효율화 흐름에 따라 기술·수요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전통적 파워트레인 기반의 변속기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확산으로 감속기와 전자제어 기반 부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해당 산업은 완성차 업체와의 수직계열화와 글로벌 기술기업 중심의 경쟁 속에서 고정밀 제어·유압·액추에이션 역량을 보유한 부품사가 핵심 공급자로 부상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동화 전환에 따른 새로운 부품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국내외 관련 자동차 변속기 시장 동향

글로벌 자동차 변속기 시장은 2024년 약 1,904.1억 달러에서 2032년 4,216.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10.7%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은 연비 개선과 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효율 변속기 수요 증가, 전기동력계(e-drive)와의 통합 확대, 그리고 승차감·주행 성능에 대한 소비자 요구 변화가 맞물려 나타나는 흐름이다. 특히 자동변속기는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단변속기(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CVT)·듀얼클러치변속기(DCT) 등 고효율 변속기의 채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글로벌 자동차 변속기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출처: Automotive Transmission Market Size, Share & Industry Analysis By Vehicle Type, By Engine Type, By Transmission Type, Intelligent Manual Transmission(IMT), Automated Manual Transmission,(MT) Automatic Transmission(AT),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CVT), and Dual Clutch Transmission(DCT)) and Regional Forecast, 2025-2032 (Fortune Business Insights, 2025.10)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지역별로는 중국·인도 등을 중심으로 생산 기반이 집중된 아시아·태평양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은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전동화 액슬·하이브리드 변속기 개발이 강화되고 있다. 북미는 SUV·트럭 중심의 AT 수요가 안정적이며 상용차 전동화 규제가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구조다.

전기차의 확산은 기존 다단 변속기 수요에 부담 요인이지만, 고성능 EV·상용 EV에서는 다단 변속기 기술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양면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ZF, Aisin, BorgWarner 등 글로벌 공급사들은 전기차 전용 감속기(e-Drive), 2단 EV 변속기, 통합 구동솔루션 등 기술 전환을 가속하며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변속기 산업은 내연·하이브리드·전기 파워트레인이 공존하는 과도기 속에서 기술적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장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자동차 변속기 시장이 전동화와 고효율 파워트레인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변속기 시장 또한 완성차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전동화 전략에 따라 유사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시장도 자동변속기 중심의 구조가 강화되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승용차의 99% 이상이 자동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국내 변속기 산업은 현대차·기아 중심의 수직 통합 구조와 현대트랜시스·현대모비스 등 그룹 계열사의 파워트레인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대트랜시스는 AT·MT·DCT·CVT·전기차 감속기까지 전 라인업을 보유한 글로벌 메이저 제조사로, 국내 변속기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글로벌 OEM 의존도가 높은 해외 변속기 업계와 차별화된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제공하며, 동시에 국내 부품사들이 특정 핵심 부품 영역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동화 흐름 또한 국내 시장에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배터리전기차(BEV)의 확산으로 전통적 다단 변속기의 적용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한편, 전기차 전용 감속기, 2단 EV 변속기 및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 등 새로운 형태의 파워트레인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변속기 자체의 단순 축소가 아니라 변속기 기능의 재정의(reconfiguration)와 고성능·고효율 제어기술의 확장을 의미한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하게 확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핵심 제어부품 특히 유압·전자제어 솔루션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솔레노이드 밸브, 유압 제어 모듈, 변속기 제어용 전자부품 등 정밀 제어 기반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부품사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형성한다. 전동화로 인해 ‘기계식 변속기’ 수요는 감소하더라도, 변속·감속·토크 제어를 위한 고정밀 제어기술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및 부품 현지 조달 확대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제어모듈, 솔레노이드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내재화 비중을 강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국내 기술 기반 부품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이다.

종합하면, 국내 자동차 변속기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동일하게 전동화·고효율화 흐름 속에서 자동변속기 중심의 안정적 수요를 유지하면서도 CVT·DCT 확대와 EV·HEV 전용 감속기 및 제어부품의 성장이라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 수직계열화가 공고한 국내 산업 특성상, 변속기 핵심 제어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동화로 인한 파워트레인 구조 변화는 오히려 정밀 제어 기술을 보유한 부품사에게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쟁업체 비교

국내 자동차 변속기 부품시장은 현대차·기아의 파워트레인 수직계열화 영향으로 대형 Tier 공급사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동사가 속한 솔레노이드·유압제어·변속 제어 부품 분야는 정밀 가공·유압제어·전자제어 역량이 결합된 고난도 영역으로 경쟁사 수가 제한적이다.

동사는 1990년대부터 축적한 솔레노이드 기반 정밀 유압 제어 기술을 통해 변속기 제어 밸브 모듈(VFS, PWM, On/Off 솔레노이드)을 국산화한 기업으로, 현대차·기아의 다단 자동변속기 및 DCT 적용을 통해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확보해 왔다. 특히 전동화 이후에도 하이브리드·EV 전용 솔레노이드 및 열관리 밸브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경쟁사 대비 전동화 적응력과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서 의미 있는 강점을 지닌다.

표 4. 주요 경쟁사 대비 기술·사업 경쟁력 비교

구분	유니크(동사)	SNT다이나믹스	카펙발레오 (CAPEC VALEO)	서진오토모티브	현대트랜시스
주요 제품	변속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유압제어 밸브 모듈(VFS/PWM/On-Off), 엔진·열관리 솔레노이드	유압 밸브, 액추에이터, 정밀 유압 부품	클러치 액추에이터, 전동식 제어장치, DCT 구성부품	변속기 하우징, 케이스, 샤프트 등 기계부품	AT·DCT·CVT·EV 감속기 등 전체 변속기 시스템
핵심기술	정밀 유압제어 설계, 솔레노이드 국산화, 다단 AT·DCT 제어 기술	군수 기반 고압 유압기술, 정밀 액추에이션	글로벌 VALEO 기술 기반 DCT·전동 액추에이션	대형 알루미늄 가공, EV 감속기 케이스 생산	변속기 설계·제조·시험·통합 기술
강점	현대차 변속기 플랫폼에 광범위 적용, 솔레노이드 전문성, 전동화 전환 용이	내구성 높은 유압 부품, 고신뢰도 품질	글로벌 네트워크·OEM 다변화, DCT 강점	EV 물량 증가의 직접 수혜	시장 지배력, 대량생산 기반
약점	완성차 의존도 높음, 글로벌 고객 다변화 제한	자동차 비중 작음 (포트폴리오 분산)	국내 고객 의존도 일부 존재	품목 확장 한계(기계가공 중심)	부품사와 직접 경쟁 관계 아님
전동화 적응력	높음-EV·HEV용 유압제어밸브·열관리 솔레노이드 확장 가능	중간 - 군수·산업용 중심	높음 - 전동식 부품 다수	중간 - 감속기 케이스 중심	매우 높음 - e-Drive 시스템 주도
시장 포지션	변속기핵심제어부품 Tier-1전문기업	유압기반하이엔드 부품기업	글로벌JV기반액추에이션전문기업	기계부품 기반 Tier-1.5	완성변속기독점 OEM 계열사

자료: 각 사 공식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정밀 유압 제어기술로 전동화·수소 시장 선도

동사는 정밀 솔레노이드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파워트레인·수소연료전지·전장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동사는 VFS, PWM, On/Off 타입을 자체 설계·양산하며 6·8단 자동변속기와 DCT 등 고난도 변속기 제어에 적용되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존 제어기술을 확장해 FCEV용 수소제어 밸브·모듈을 1·2세대로 상용화하였으며, 수소 저장·재순환 등 고압·고순도 환경 대응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동사는 전장·HMI 분야에서도 시계·USB·인디케이터 등 전장 부품을 개발하며, 회로·센서·통신기술 기반의 인터페이스 역량을 축적해 자율주행·스마트캐빈 기술로 확장 가능한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자동차 동력전달의 핵심인 변속기와 변속기 제어에 사용되는 솔레노이드 밸브

동사의 핵심기술은 솔레노이드 밸브 중심의 정밀 유압·유량 제어 기술로, 50여 년 이상 축적한 정밀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구동·제어·전장·전동화 분야의 핵심부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4단 자동변속기용 솔레노이드 밸브를 개발한 이후, 8단 자동변속기용 솔레노이드 밸브를 일본 텐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산한 기술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에 6속, 8속,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변속기용 솔레노이드 밸브를 장기간 공급해 온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변속기 외에도 현대차 넥쏘와 수소버스·수소트럭에 적용되는 수소연료전지 스택용 수소 제어 모듈(Fuel Processing System, FPS)과 수소탱크 솔레노이드 밸브(Hydrogen Tank Solenoid Valve, HTV)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 국산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동사는 이 외에도 친환경 파워트레인 부품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FCEV 주변장치 솔루션의 국산화·정밀 제어 기술 확보를 통해 차세대 수소차 기술군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파워트레인 제어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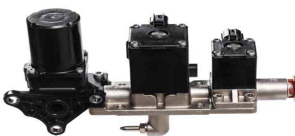
동사의 기술 경쟁력의 중심은 자동변속기용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로, 이는 1992년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동사 매출을 견인하는 핵심 제품군이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자기력으로 플런저를 제어하여 밸브 개폐를 수행하는 정밀 유압제어 기술이 요구되며, 변속기 제어유닛의 명령에 따라 유압을 조절해 브레이크·클러치를 제어하는 변속기 핵심 구성요소이다. 동사는 VFS(Variable Force Solenoid), PWM(Pulse Width Modulation), On/Off 타입 등 다양한 솔레노이드 플랫폼을 자체 설계·양산해 왔으며, 6·8단 자동변속기와 DCT(Dual Clutch Transmission)용 솔레노이드 밸브까지 확대해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동사는 ‘직접 변속제어용 고유량 솔레노이드 밸브’, ‘파킹 로크 장치용 솔레노이드 밸브’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였다.

▶ 친환경·수소연료전지차 제어기술

동사는 기존 파워트레인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차 핵심 장치인 수소제어 밸브 및 모듈 기술을 개발·상용화하였다. 2012년 1세대 수소제어밸브 개발 후 양산에 성공하였고, 이어 2세대 FCEV용 제어밸브도 공급 중이다. 또한 동사는 “수소저장시스템(BOT: Balance Of Tank) 수소누설 최소화 기술”, “수소 재순환 시스템 성능 개선 기술” 등 국가 R&D과제를 다수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소 충전·방전 제어용 밸브 어셈블리’, ‘차량용 수소 충전 시스템 및 충전방법’ 등 특허를 확보하였다. 해당 기술은 고압·고순도 수소 환경에서 누설 방지, 온도·압력변화 대응, 내구성 확보 등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동사는 이를 자체 기술력으로 대응해 FCEV 부품 시장에서도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 기술은 기존 솔레노이드 제어기술의 확장성이 실제로 검증된 사례로, 향후 수소차 및 수소 산업 전반으로의 응용 가능성이 큰 미래 핵심 기술이다.

표 5. 동사의 주요 제품

구분	품목	기능	제품
Powertrain System	솔레노이드 밸브 (내연기관 부문)	변속기제어유닛(TCU)로부터 신호를 받아 클러치를 제어하여 부드러운 변속과 연비 향상	 Direct VFS  Pilot VFS  On/Off  PWM
	솔레노이드 밸브 (엔진 부문)	엔진 냉각수를 이용하여 변속기 오일의 최적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로써 변속기의 내구성 향상	   On/Off
		Engine mount solenoid valve : 엔진마운트 내부의 부동액 흐름을 제어하여 엔진의 진동 및 소음 감소	 Pneumatic solenoid valve for turbo-charger : 콤프레셔에서 발생한 고압을 이용하여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며, 엔진 출력과 연비 향상 
Eco-Drive System	Emission control system	Bypass valve for emission reduction : 배출가스환원장치(EGR) 쿨러와 같이 장착되어 배기가스를 저감시키고, 엔진 출력 향상	
	Hydrogen gas control system	Hydrogen gas control valve : 수소연료전지차(FCEV)의 수소를 차량 상태(속도, 전기충전량 등)에 따라 적정량을 제어하여 전기생성장치(stack)로 공급	
	Fuel control system	Fuel tank isolation valve : PHEV의 ECU 신호에 따라 연료증발가스를 캐니스터로 배출하거나 차단하여 연료탱크의 적정압력을 유지하는 장치	 Fuel cut valve : 주행 시 연료의 유동으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캐니스터로 배출시키고 차량이 4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전복 시에 연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장치 

자료: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전장 · HMI(Human Machine Interface System) 및 전자제어 응용 기술

동사는 제어밸브 중심의 기술력에 더해 차량 내부 전장 · HMI 제품군에서도 기술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차량용 시계, USB 충전기, 인디케이터, 스티어링 휠 히팅패드, 센서류 등 다양한 전장 부품을 개발 · 양산하고 있으며, 특히 USB 충전기 제품은 매출 비중이 지속 확대되며 사업영역 확장성과 생산기술의 안정성을 입증하였다.

이는 단순 전장품 생산이 아닌 회로·인터페이스 설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 기반의 정보표시장치 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차량 내 편의기능과 UI/UX 기술로 제품영역을 확장한 결과이며, 이러한 전장기술은 향후 자율주행·스마트 캐빈 기술로의 연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사는 전동화 부품의 안정적 양산 경험과 솔레노이드 제어기술의 내연기관·전동화 전반 적용을 통해 현행 사업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소·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수소 제어 모듈 개발 및 실증 검증은 기술 국산화·원천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며, 전동화 열관리 부품의 매출 성장과 함께 향후 동사의 성장의 중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PEST 분석

자동차 산업은 국가별 환경·안전·품질 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 중 하나로, 최근 정부 정책은 배출가스 규제 강화, 탄소중립 달성, 전동화 촉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내연기관 중심 부품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전동화·친환경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사는 기존의 솔레노이드 밸브와 각종 제어 밸브 등 내연기관 핵심부품을 보유하면서도,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FCEV 수소 제어 모듈, 전동화 냉매·냉각 밸브 등 친환경 부품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안전보건 규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국제 규격의 인증을 유지하며 법규 기반의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글로벌 경기 상황과 완성차 시장의 생산·판매 흐름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고금리·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내수 자동차 판매가 축소되고 생산도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동사 역시 국내외 OEM 납품 비중이 높아 생산 변동성의 영향을 받지만, 북미·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하이브리드·전기차 중심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동화 부품 사업에서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은 원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효율적 재고관리 및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동사는 중국 청도 법인을 운영해 글로벌 조달 및 생산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 품질·생산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국제 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또한 글로벌 OEM에 품질 신뢰성을 제공하며,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거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성, 안전성, 편의성 등 새로운 표준을 요구하고 있어 차량 전장화·전자제어 기능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는 센서, 전장품, 열관리 부품 등 정밀 제어 기술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동사의 핵심 부품군인 전장 부품, 제어/구동 솔레노이드 밸브, 전동화 열관리 제품의 시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SG 경영 요구가 산업 전반에서 강화되면서 협력사·부품사에도 환경관리, 안전보건, 정보보호 등 책임경영 체계 구축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동사는 이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ESG 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기술 혁신은 전동화(EV·HEV), 수소연료전지(FCEV),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밀 제어 기술, 차량용 센서, 전력 제어, 열관리 기술 등이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동사는 설립 이후 축적한 정밀 솔레노이드 밸브 기술을 기반으로 DCT 솔레노이드, 오일·연료·배기가스 제어 밸브, 전동화 냉각·냉매 밸브 등 다양한 제품군을 고도화해 왔다.

또한, 미래차 핵심 요소인 FCEV 수소 제어 모듈, 능동형 편익 시스템(자율주행 대응), 차량 열관리 솔루션 등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사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 속에서 생산공정 자동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림 2. 동사 사업의 PEST 분석

➤ Political (정치)

- 글로벌탄소중립정책,배출가스규제 강화
→친환경부품전환압력증가
- 전기차수소차보급확대정책
→전동화·FCEV부품사업기회확대
-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규제 등
공급망규제강화 → 내부준법경영중요

➤ Social (사회)

- 친환경·안전·편의 기능 요구 증가
→전장·센서·정밀제어밸브수요확대
- 환경·안전보건·정보보호체계 확립
→신뢰도 좌우, ISO 인증 기반 ESG 대응
- 지역사회·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요구 증가
→안전보건방침 및 교육 강화



➤ Economic (경제)

- 글로벌 경기둔화 및 고금리 영향
→자동차내수 판매 및 생산 변동성 확대
- 북미·유럽 중심 친환경차 수요 증가
- 원자재(알루미늄·구리) 가격 및 환율 변동
→원가관리 및 조달 전략
- 중국 시장 경쟁 심화
→청도법인 기반 생산·조달 다변화

➤ Technological (기술)

- EV·HEV·FCEV 확대로 열관리·전동화·수소 제어 기술의 중요성 증대
- 자율주행·ADAS 기술 확산
→ 고정밀 솔레노이드·센서류 기술 고도화
- FCEV 수소 제어 모듈, 능동 편익 시스템, 전동화 밸브 등 개발
- ISO 9001 기반 신뢰도·공정 안정성 향상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꾸준한 매출 확대와 견고한 재무 구조로 안정적 성장 지속

동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22년 2,840.8억 원, 2023년 3,289.5억 원, 2024년 3,748.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수익성을 확보하였고, 연구개발비 증액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영업이익은 2022년 59.4억 원에서 2024년 83.5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5.5억 원에서 77.2억 원으로 상승하며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 재무 구조 측면에서는, 자산과 자본이 확대되고 차입금이 감소하면서 재무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 3개년간 꾸준한 매출 증가세

동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22년 2,840.8억 원, 2023년 3,289.5억 원, 2024년 3,748.0억 원으로 주력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였다.

매출 구성은 전장, 구동, 제어, 전동화 네 부문으로 구분된다. 전장 부문 매출은 2022년 788.2억 원, 2023년 835.8억 원, 2024년 1,092.6억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29.2%를 차지하였다. 구동 부문은 2022년 1,102.6억 원, 2023년 1,401.0억 원, 2024년 1,587.1억 원으로 성장하여 전체의 4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어 부문은 2022년 853.2억 원, 2023년 890.7억 원, 2024년 823.4억 원으로 제품판매가격이 2023년 6,005원에서 2024년 4,841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2024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2.0% 비중을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동화 부문은 2022년 96.8억 원, 2023년 162.0억 원, 2024년 244.9억 원으로 증가하며 6.5% 비중을 차지하였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199.4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2,756.9억 원) 대비 16.0%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 전동화 차량 부품 납품 확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동사는 현재 수소차 및 전기차용 신제품 개발과 양산 공급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외 고객사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사업 다각화 전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원재료비 변동에도 안정적인 수익성 흐름 유지

주요 원재료 가격을 살펴보면, 알루미늄은 2022년 톤당 2,703달러, 2023년 2,250달러를 나타낸 후, 2024년 2,419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구리는 2022년 톤당 8,797달러, 2023년 8,478달러, 2024년 9,147달러로 변동을 보였다. 이에 따라 매출원가율은 2022년 89.3%, 2023년 87.1%, 2024년 88.0%로 소폭 변동하였고, 2024년에는 원재료비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생산관리로 수익성을 일정 수준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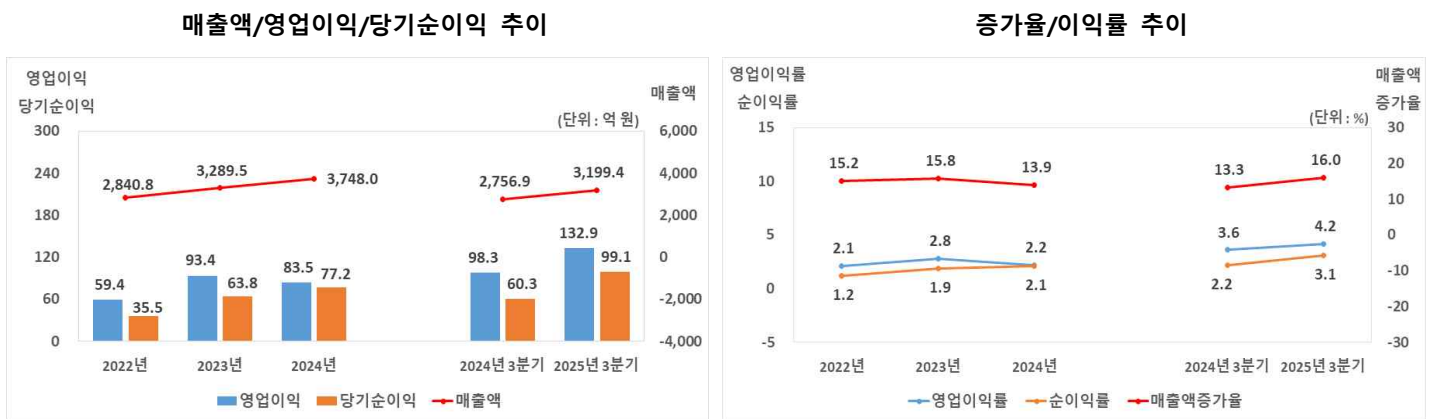
영업이익은 2022년 59.4억 원, 2023년 93.4억 원, 2024년 83.5억 원으로 나타났다. 판관비는 급여(79.6억 원 → 81.4억 원), 지급수수료(12.6억 원 → 20.8억 원), 운반비(38.4억 원 → 52.9억 원) 증가로 인해 다소 확대되었으며, 그 중 경상개발비는 2022년 113.3억 원, 2023년 126.6억 원, 2024년 143.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35.5억 원, 2023년 63.8억 원, 2024년 77.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기타수익의 잡이익 확대(25.1억 원 → 36.7억 원)와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 축소(22.2억 원 → 11.5억 원), 그리고 법인세수익 18.4억 원 반영이 당기순이익 증가를 견인하였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132.9억 원, 당기순이익 99.1억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한층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당사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비용 부담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인 생산·비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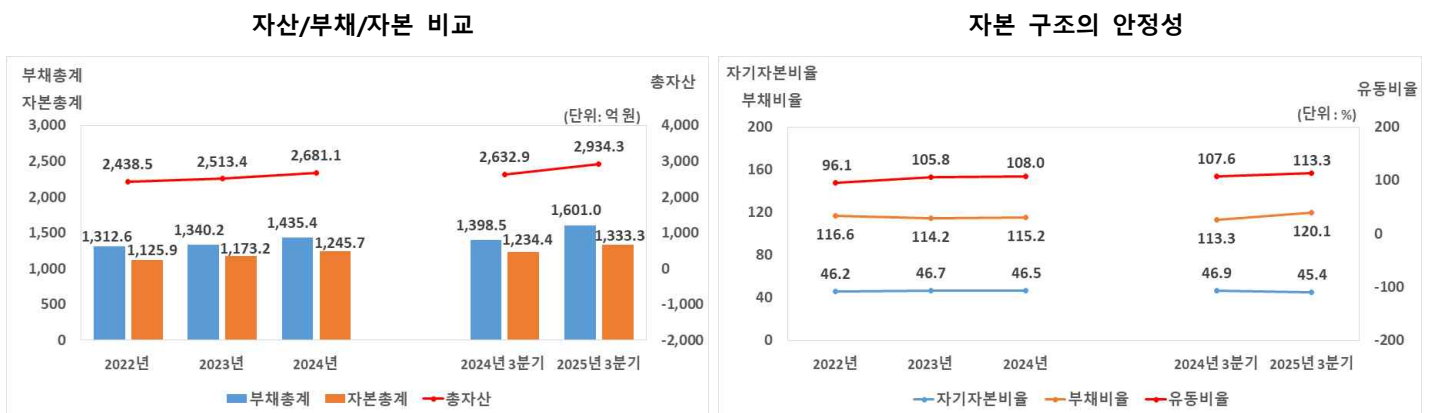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분기보고서(2025.11),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유동성 지표 개선과 더불어 차입금 축소와 자본 확충

동사의 자산총계는 2022년 2,438.5억 원, 2023년 2,513.4억 원, 2024년 2,681.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고자산이 2023년 502.6억 원에서 2024년 671.7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07.0억 원에서 57.7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유·무형자산 취득과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일시적 현금 유출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동비율은 2022년 96.1%, 2023년 105.8%, 2024년 108.0%로 개선되었다.

그림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분기보고서(2025.11),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부채총계는 2022년 1,312.6억 원, 2023년 1,340.2억 원, 2024년 1,435.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 확대에 따른 매입채무 증가(420.8억 원 → 506.1억 원)에 기인하였다. 다만, 유동차입금은 601.2억 원에서 583.0억 원, 장기차입금은 148.0억 원에서 134.0억 원으로 감소하여 부채 부담을 일부 완화하였다.

자본총계는 2022년 1,125.9억 원, 2023년 1,173.2억 원, 2024년 1,245.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당기순이익 증가와 해외사업환산손익 13.8억 원 반영으로 기타포괄이익이 추가 확보되었으며, 2023년과 2024년 각각 2.9억 원, 8.7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며 주주환원정책도 병행하였다.

2025년 3분기 기준 주요 재무지표는 유동비율 113.3%, 부채비율 120.1%, 자기자본비율 45.4%를 기록하였다. 당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동성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차입금 축소와 자본 확충을 병행하여 재무 건전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표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3Q	2025년 3Q
매출액	2,840.8	3,289.5	3,748.0	2,756.9	3,199.4
매출액증가율(%)	15.2	15.8	13.9	13.3	16.0
영업이익	59.4	93.4	83.5	98.3	132.9
영업이익률(%)	2.1	2.8	2.2	3.6	4.2
순이익	35.5	63.8	77.2	60.3	99.1
순이익률(%)	1.2	1.9	2.1	2.2	3.1
부채총계	1,312.6	1,340.2	1,435.4	1,398.5	1,601.0
자본총계	1,125.9	1,173.2	1,245.7	1,234.4	1,333.3
총자산	2,438.5	2,513.4	2,681.1	2,632.9	2,934.3
유동비율(%)	96.1	105.8	108.0	107.6	113.3
부채비율(%)	116.6	114.2	115.2	113.3	120.1
자기자본비율(%)	46.2	46.7	46.5	46.9	45.4
영업현금흐름	46.5	130.0	121.1	119.0	119.3
투자현금흐름	-178.1	-142.9	-135.5	-106.9	-167.4
재무현금흐름	62.9	5.3	-38.6	-36.8	94.9
기말현금	115.1	107.0	57.7	83.7	104.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분기보고서(2025.11), 서울평가정보(주) 재무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2025년 실적은 전동화 부문의 급성장과 구동·제어 부문의 안정적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동사의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199.4억 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2024년 연간 매출 3,748.0억 원 대비 이미 약 85.4% 수준을 달성한 수치다. 전동화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172.9억 원에서 304.8억 원으로 증가하며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났고, 구동 부문 또한 1,185.3억 원에서 1,392.9억 원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25년 3분기 생산 가동률은 구동 부문 101.0%, 제어 부문 91.7%, 전동화 부문 93.8%로 확인되며, 이는 2025년에도 완성차 업체의 주문이 예년 대비 증가하고 생산능력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전동화·수소 관련 신규 제품군(냉매밸브·냉각수밸브·수소연료전지 솔레노이드 등)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본격적인 양산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구조 개선도 실적 전망 강세 요인이다. 2024년 대비 2025년은 전동화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구동/제어 부문이 안정적인 베이스 매출을 유지하면서, 내연기관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2024년 대비 2025년 3분기까지 매출 추세를 감안할 때, 동사의 2025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4,210.4억 원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동화 중심의 구조 전환이 실적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동사의 2025년 실적은 전동화 부문의 고성장, 구동·제어 부문의 안정적 생산가동률, OEM 주문 증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미래차 기술 중심으로 개편되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사업부문		2022	2023	2024	2025E
자동차 부품	전장	788.2	835.8	1,092.6	1,217.8
	구동	1,102.6	1,401.0	1,587.1	1,843.9
	제어	853.2	890.7	823.4	832.0
	전동화	96.8	162.0	244.9	316.7
합계		2,840.8	3,289.5	3,748.0	4,210.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분기보고서(2025.11),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동사의 기술경영 성과와 미래차 제어 부품 기업으로의 성장 전망

동사는 최대주주의 지분 확대를 통해 책임경영 기반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보하고 기술 중심의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시장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기존 자동변속기·하이브리드용 솔레노이드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 매출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및 탱크 밸브, 자율주행 센서 클리닝 솔레노이드, FMS 단말기 등으로 기술·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미래차 핵심 제어부품 기업으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 경영 안정성 강화와 기술 리더십의 대외적 인정

동사는 2024~2025년 동안 지속적인 성과와 조직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영 신뢰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대주주 안영구 대표이사는 2025년 11월 추가 지분을 매입해 보유 지분을 20.61%까지 확대하며 장기적 책임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는 오너 중심의 일관된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동사의 기술개발·전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 리더십 측면에서도 2025년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안영구 대표이사가 ‘자동차공학대상’을 수상하며 동사의 기술경영 능력이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솔레노이드 밸브 누적 생산량이 3억3천만 개를 돌파한 이력, 국내 시장 70% 점유율, 세계 2번째 8단 자동변속기 솔레노이드 양산 등은 장기간 축적된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구체적 지표이다.

■ 기술 포트폴리오 확장 and 미래차 중심의 성장 전망

동사는 기존 자동변속기·DCT·하이브리드용 솔레노이드 밸브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면서, 미래차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전동화 확산 속에서도 변속기 제어 솔레노이드는 하이브리드 변속기와 고단화 파워트레인에서 여전히 필수적이며, 동사는 이미 6·8단뿐 아니라 10단 자동변속기까지 대응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전동화·수소·지능화로 확장되는 미래차 흐름 속에서 동사는 핵심 제어부품 영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 스택용 수소제어모듈(FPS 밸브), 넥쏘·수소버스·수소트럭에 적용되는 수소탱크용 솔레노이드 밸브(HTV) 공급은 동사가 수소차 분야에서도 인정받는 몇 안 되는 국내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FPS 밸브 원천기술 국산화 완료는 향후 수소차 생산 확대 시 동사의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현대차그룹 R&D 테크 데이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센서 클리닝 밸브·제어기 일체형 시스템’은 자율주행 차량에서 센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동사의 솔레노이드 제어 기술이 새로운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스택·탱크 밸브 공급, 차량관제시스템(Fleet Management System, FMS)용 부품 공급은 동사의 기술이 자율주행·수소전기차·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 파워트레인 제어기술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성과다. 전통적 변속기 시장 축소 가능성은 리스크 요소일 수 있으나, 동사가 보유한 정밀 유압·솔레노이드 기술은 EV·HEV·FCEV·자율주행 차량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제어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사는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동화·지능화 파워트레인 제어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성장 축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크(011320)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한국거래소(KRX)



자료: 네이버증권(2025.11.21)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유니크	X	X	X